

# 분단40년 거리 좁히는 북한체험기

## 실생활 소개로 북한을 보는 관념적 틀 깨

통독 이후 국내의 통일논의는 그 추상성과 일방적인 운동성의 차원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실현방안의 모색이라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오랫동안 적대감과 호기심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현실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었던 북한에 대한 정보는 사실, 거의 대척점에 서 있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였다. 그 하나는 이른바 '교과서적 이데올로기'에 기준한 북한의 모습이다. 시대에 뒤진 반공이데올로기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그것이 북한의 객관적 실상이라기 보다는 선별작업을 거친 단편적 정보라는 점에서 크게 미진함을 느끼게 했다.

또다른 하나는 정부측의 공식적인 북한정보 독점관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일련의 '북한방문기' 류를 통해서다. 1988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해 주로 재야인사·재미교포·종교인·학자·기자들의 인상에 가까운 기행문들이 주류를 이뤄 왔는데, 직접 체험에 바탕한 이들 북한방문기도 취재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독자의 오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이렇듯 제한된 통로로밖에 북한의 실상을 접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현재 남북의 현실적 거리 혹은 차이의 반증이기도 하지만, 최근들어 선보이고 있는 북한체험기들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보고형식의 차원을 넘어 '읽는 재미'까지 더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실 지금까지 거칠게나마 '북한학'이라는 이론적·학문적 수준에서의 논의와 출판은 꾸준히 진행돼 왔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출판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갖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 때문이다.

### 현장감 있는 방북취재기 눈길 끌어

지난 6월 출간된 이래 한달 남짓 동안 45만 부나 팔리면서 초베스트셀러로 부상한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고려원)는 알려진대로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수기. 국제적인 화제를 모았던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네임벨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장과정과 첩보원으로서의 훈련과정, 그리고 전향하기까지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담담하면서도 호소력 있게 담아낸 점이 상업적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 주인공이 보냈던 7, 80년대 북

한사회의 모습을 비록 일면적이거나 생생히 전해주고 있어 가장 최근의 그들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은 이 책이 말그대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대한 '체험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집필목적이나 전체 구성에 있어서는 KAL기 사건과 그 이후의 생활에 비중을 두고 있어 본격적 북한체험기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처음부터 취재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본대로 느낀대로" 기술한 책들은 전권에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전해준다. 「평양특파원」(이찬삼, 중앙일보사) 「갈라진 45년 가서 본 반쪽」(안동일, 돌베개) 등이 그것으로, 두 책 모두 해외주재 기자의 취재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평양특파원」은 1988년과 90년 두 차례에 걸친 36일간의 북한의 체류기간 동안 저자가 만난 북한사람들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하고 있다. 고위관리에서부터 군인·노동자·학생·교수·배우·경찰·운전자·안마사·기자·의사·캐디에 이르기까지 1500여명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전반적 사회상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구조를 생생하게 재현시키고 있는데 "세상이 변한 만큼 북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최근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갈라진 45년 가서 본 반쪽」도 취재기자의 신분으로 북한에 체류하면서 경험한 북한의 실상을 르브형식으로 소개한 책이다. 89년 당시 제13차 청년학생축전 등의 행사취재와 김일성종합대학·협동농장 방문기, 고위관리와의 인터뷰 등을 실고 있는데 "6·25 이후 세대로 냉전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북한을 소개할 수 있"는 저자의 객관적 시각이 돋보인다.

한편 「서울과 평양」(하지하라 료, 김종원 옮김, 다나)은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赤旗」 기자 출신인 저자의 남북탐방기로 제3자의 입장에서 체험한 양 사회의 실상을 비교하고 있어 이채롭다.

### 전문적 시각 통해 본 체험기도

국내 언론사에서 출간된 북한체험기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그 충격의 실상」(월간조선 편집부)은 그동안의 북한체험기들이 저자 개인의 체험이라는 한계



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평양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귀순자나 망명자·전향자 등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과 취재 등의 목적으로 '가본' 사람들의 수기와 증언 등을 모은 책.

「北, 행복도 강요되는 땅」(연합통신)도 김현희를 비롯해 대학생·군인·간호원·해외근로자 등 북한출신의 귀순자와 방북취재 경험에 있는 기자 등 30여명의 체험담을 모아 엮었다.

일정기간의 북한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체험기이면서도 단순한 인상기에서 탈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북한사회의 이면을 파헤친 책들도 출간돼 있다.

「어둠의 공화국」과 「가난의 공화국」(李佑泓, 통일일보사)은 조총련계 농업 전문학자인 저자의 꼼꼼한 과학적 관찰기이다. 낙후된 북한경제의 실상과 그것이 북한주민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구조적으로 해명해내고 있는 이 책은 전편에서는 농업을, 후편에서는 공업을 중심으로 극도로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의 폐해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아시아감시위원회, 송철복 외 옮김, 고려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아시아감시위원회의 인권보고서라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로 평가받는다. 북한의 인권부재 상황을 반대하고 사실적인 자료와 검증으로 확인했다.

이밖에도 「북한新풍물기」(고태우, 우아당)는 「백과사전」 「지리사전」 등 북한의 공개된 문헌자료와 북한출신 실학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분단후 북한 각 지역의 행정구역 내역과 풍물, 문화유적 등을 상세하게 살피고 있어 눈길을 끈다.

### 북한에 대한 일차적 자료 제공해

최근 전해오는 외신에 의하면 현재 통일독일에서는 변화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독인들의 불안심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분단이 가져온 같은 민족간의 이질성의 심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에 대한 정치적 혹은 이론적 논의와 병행해 최근 출간되고 있는 일련의 북한체험기가 갖는 의미는 바로 북한사회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언론인 유정현 씨(전 「월간조선」 부장)는 "인간이 살아가는 제도로서의 북한체제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들 북한체험기가 이제까지 북한을 보는 다분히 관념적인 틀을 일정부분 수정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 정소연 기자